



Iraq

이라크

여러분이 희망의 생명줄입니다

이라크 아르빌의 오잘 시티(Ozaj City)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가정. 한 집에서 평균 30명이 살고 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희망이 전해지는 곳, 박해를 피해 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가 이라크 북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이루어 냈지만,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보금자리, 건강관리, 교육 등이 우선 과제입니다.”

이라크 칼데아 가톨릭교회 바샤르 와르다 대주교(아르빌대교구장)가 ACN 방문단에게 사람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와르다 대주교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에서 12만 명의 난민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들은 사실상 냉혹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 **이라크 북부 지역을 떠나든지 아니면 새 삶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와르다 대주교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난민들의 존엄성입니다. 그들은 다에시(IS)가 2014년 여름 니네베 평원과 모술을 침략할 때 집을 잃고 쫓겨나면서 겪고 있는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천 가구가 집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땅을 사지 말아라. (그들이 사라지면) 미래에는 공짜로 갖게 될 것”이라던 극단주의자들의 뼈아픈 중상이 여러 해 동안 퍼져 왔습니다.

ACN은 아르빌대교구가 진행한 긴급 원조 사업의 60%를 지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식량 및 임시거처가 제공되었으며 아르빌 인근 도후크와 앙카와에서 최대 15,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8개가 신설되었습니다.

ACN의 지원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깊은 절망에 빠진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와르다 대주교는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 희망의 생명줄이 되어준 ACN 후원자 여러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난민 캠프의 임시 거처를 떠나 임대 주택으로 옮겨간 가족들은 컨테이너가 아닌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존엄성을 회복되는 첫 단계로 옮겨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 지원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와르다 대주교는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알려 주십시오.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ACN 방문단이 이라크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실로 놀랍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라크의 형제 자매들이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와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와르다 대주교

만성질환 관리는 큰 숙제입니다

이번 이라크 방문은 ACN 지원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총 10개의 난민 캠프를 찾아가며 ACN의 도움을 받는 수많은 가정들을 만났습니다.

수다쟁이 소녀 타마라 사다르(11세)가 한 칸이 주택 앞에 있는 그녀의 부모에게 방문단을 안내합니다. 타마라의 가족은 모두 7명으로 카라코시 출신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라크 북부 양카와의 한 캠프에서 바샤르 신부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타마라의 아버지 아말 사다르는 원래 심한 당뇨병 환자였는데 다에시(IS)에게 총상을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병이 악화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방문단이 사다르 가족을 찾아오기 3일 전에 다리의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관리는 큰 숙제입니다. 규칙적인 약물 복용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그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은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ACN은 이러한 가족들에게 필수약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마라의 어머니 르테 사다르는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한쪽 눈을 잃은



(사진 좌측부터) 아버지 아말 사다르의 휠체어를 끌고 있는 타마라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난민 캠프의 혼잡한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사다라 가족과 같은 처지의 많은 가정들이 ACN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바지 신부는 2006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바지 신부는 등을 가격당하고 다리가 부러졌으며 총상을 입고 주먹에 맞아 치아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몸값을 지불하기 전까지 4일 간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한 채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 신부는 수많은 가족들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겪고, 희망을 빼앗겨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2에서 방영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원제: Kill the Christians)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바지 신부를 먼저 접한 방문단은 그를 직접 만나서 그가 관리하고 있는 난민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지 신부는 지난해 양카와에 있는 그의 본당을 개방하여 마르 엘리아스 센터를 개설하였고, ACN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으로 난민들이 포함된 본당 봉사팀과 함께 120가구(약 600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 지원과 영적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센터에서 봉사 중인 말루 선생은 작년만 해도 난민들이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자문하곤 했지만 지금은 환한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적응이 빠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재미도 주고자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미소를 되찾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

음이 가장 무거운 부모들도 자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올 가을, 마르 엘리아스 센터 옆에 ACN의 후원으로 지어진 새 학교가 문을 엽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들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이래로 이곳에서 4명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센터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가 되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더글라스 바지 신부가 ACN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지 신부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의 양떼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더글라스 바지 신부

“ 사제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

다에시(IS)의 점령지를 가까이 지나가는 4시간의 살얼음 같은 여정 끝에 방문단은 라반 대주교(자코 및 아마디아 교구장)와 사미르 신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ACN이 후원하는 교구 사목센터는 최근까지 난민 수백 가구를 수용했는데, 그중 일부는 인근의 산악지대에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나무 밑이나 자동차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본당 신자 혼자서 고아 22명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사미르 신부는 “이곳의 밤은 매우 춥다”며 “두 달 넘게 매일 장례 미사를 봉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에시(IS)는 세상을 향해 악을 드러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야지디인,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도록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형제가 사미르 신부에게 “당신은 사람들 안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본다”며 그의 생각을 건넸습니다. 사미르 신부는 감정에 북받쳐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부나’가 된다는 것, 즉 사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미르 신부



‘당신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는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친절은 수많은 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다

ACN은 난민들에게 식량, 의약품, 임대료 및 임시 거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형제자매들의 연민과 사랑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바로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의 후원자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이라크 북부 지역의 그리스도인 난민들은 하느님을 믿으며 이곳에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희망을 다시 찾습니다.

새로운 집과 본당, 공동체, 학교 등은 신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들의 미래를 향한 관심을 찾아 줄 수 있습니다. 한 난민 가정은 “우리는 이 도시에 대해 희망적이라며 “이곳에 우리들의 집을 지읍시다!”라고 외칩니다.



ACN의 지원으로 도미니카회 수녀들이 난민 가정들을 보살핍니다. 수하마 수녀는 “(이곳 신자들에게) 사제와 수녀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부분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ACN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야지디인처럼 다에시(IS)의 박해로부터 고통받는 다른 소수 종교 공동체도 지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니리만(사진 우측)과
그녀의 가족

방문단은 이라크 북부 지역을 5일 간 돌아 보며 수백 가구의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집에 30명이 생활하고 학교 강당과 간이 주택에서 비좁게 살아가는 형편이지만, 모두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북이라크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위한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문단을 향해 '우리도 함께 데려가 달라! (유럽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니리만은 현재 실직 중이며, 그녀와 같은 처지의 청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산을 이끌어 갔던 삶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소규모 창업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대다수가 실업자인 현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니리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라크 가톨릭교회는 여러 원조 사업에 실력 있는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며, 그들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ACN은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후원자 여러분께서 ACN의 이라크 지원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청합니다.

두려움이 서린 눈빛과 믿음

칼데아 가톨릭 성 베드로 신학교에는 파디니온 니산 학장 신부와 25명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 18명은 칼데아 가톨릭, 나머지 7명은 시리아 가톨릭 출신입니다. 방문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신학교를 찾아가 저녁기도에 함께했습니다.

땅거미가 지는 그 시간은 은총과 평온의 순간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잔잔한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식사 자리를 가지며 파디신부는 "이라크에서 사제직은 단순히 성체 성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의 사제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

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바그다드의 사제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살해당할 수도 있고, 폭탄 테러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자기 성소에 만족하는 한편, 두려움이 서린 눈빛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바그다드와 키르쿠크 그리고 저 너머 모술에서 사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파디신부가 ACN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 베드로 신학교와 이

라크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실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라크의 젊은 사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가 ACN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사제들

